

“30년 내 전북 10개 시·군 사라진다”

청년층 이탈·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원인 임실·진안·장수·고창군 등 소멸 가능성 가장 높아 고용정보원 보고서...농촌 특성 발전 전략 마련 시급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3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청년층 이탈 등으로 농촌과 산간지역 시·군은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해 자치단체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30년 이내에 소멸할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시·군은 총 77곳이다. 이중 전북은 임실군과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순창군 등 무려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20~39세 여성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간 상대비가 0.5 이하일 경우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임실군과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등은 0.25에서 0.28 이내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감소의 대표적인 이유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이다. 특히 열악한 경제 구조 속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층의 탈 농산어촌화도 주원인이다.

전북은 최근 수년간 20~29세 인구 감소 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 청년층 인구가 증가한 곳은 14개 시군 가운데 완주군이 유일했다. 이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KCC 등 대형 공장이 완주산단에 밀집돼 있고, 최근 조성된 혁신도시로 젊은층의 유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 등과 관련한 우울한

분석들이 연이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자체 종합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농촌고령·과소화마을 대응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농촌문제 인구 감소 해결책을 찾고 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농촌 시군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짜고 그 지역의 인구를 계속 붙잡아 둘 수 있는 사업이나 작물 재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저출산을 해소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순창=서은종기자 syj@kwangju.co.kr

고창 복분자주 ‘선운’

중국 명절 선물로 인기

2000세트 산동 백화점 납품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지역 특산물인 복분자주가 중국에서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다.

고창군은 11일 “영농조합법인 ‘고창서해안복분자주’에서 생산한 복분자주 ‘선운’을 2012년 이후 5년째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꾸준히 중국으로 수출해 오고 있으며 현지에서 명절 선물로 인기가 있다”고 밝혔다.

고창서해안복분자주는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복분자주 2000세트(5000만원 상당)를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복분자주는 중국 산동성의 유명 백화점에 추석 선물로 납품될 예정이다.

복분자주 ‘선운’은 원적외선과 바이오성분이 풍부한 황토 도굴에서 발효시킨 술로 200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만찬용 술로 사용되기도 했다.

‘선운’은 중국 바이어가 2011년에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주를 비교해서 시음해본 뒤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고창서해안복분자주 송만희 대표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에서 생산된 ‘청정 제품’임을 내세워 환경문제가 심각한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복분자주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져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따뜻한 명절 지내세요

황송수 순창군수가 최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요양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순창=서은종기자 syj@kwangju.co.kr

부안군, 올 상반기 50개 사업 국비 1219억원 확보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모사업 연이어 선정

부안군이 올 상반기 적극적인 발표행정을 통해 국가 공모사업 등 50개 사업에 국비 1219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2017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과 부안읍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국비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 8월 말 현재 2017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50개 사업에 국비 1219억 5000만원을 확보해 부안에 오

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만복(扶來滿福)’의 고장 부안 실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안군은 올해 초 국비 100억원 등 총 111억원이 투입되는 공공실버주택 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국비 269억원 등 총 384억원이 투입되는 부안도시정수예방 하수도사업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누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서도 상사·보

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상서면 봉은마을 정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 선정돼 국비 8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환경부에서 공모한 2017년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지역에 선정돼 국비 258억원 등 총 368억원을 투입해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이 가능해졌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발판 마련 등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한 만큼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영광소방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비상구 폐쇄·훼손 등 점검

영광소방서는 “최근 영광 만남의 광장에서 영광터미널까지 소방공무원과 의용·여성소방대원, 영광경찰, 영광군청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문 화운동 확산을 위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연휴를 맞아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비상구 폐쇄·훼손 및 잠금행위·물건적치 여부 점검, 관계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캠페인, 소소심 캠페인, 소방차 길터주기 등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추석 연휴 정상운영

정읍시는 “서남권 추모공원이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정상 운영된다”고 11일 밝혔다.

서남권 추모공원 추석명절 연휴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추석 당일 화장장에 한해 2회 차인 오전 11시부터 3회(1시, 오후 1시, 오후 3시) 운영하고, 봉안당은 참배객 편의를 위해 5일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추모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상황 근무를 편성해 정상근무하고 교통 및 주차안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12일 개원한 서남권 추모공원은 297일간 운영한 결과, 화장장은 총 3077건으로, 1일평균 10건, 봉안당은 477기, 자연장은 330기를 안치했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

영광경찰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박차

세부추진 계획 발표

영광경찰서는 최근 부정정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문화 조성으로 경찰 내부 위반사태를 사전 차단하고 법집행 및 수사기관으로 위상제고를 위한 ‘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기’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추진 계획은 ▲명절 전후 선물 주고받는 행위 금지 ▲야간 음주회식문화 개선 ▲골프문화 개선 ▲청렴문화 개선 TF팀 구성 및 운영 등이다. 김상철 영광경찰서장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종 청렴교육 등을 통해 조직 내부의 청렴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최적적지)신주택/구창고) 매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1823㎡ 투자유망 매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 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정포증축가능 매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연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2억2천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동정리 담 7,966㎡ 4차선국도변 투자유망 매9억원
4. 나주시 산포면 신재리 전 배과수원 7,934㎡ 혁신도시 근거리 투자 유망 매 4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점 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6.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 지역 22억원
7. 나주시 노안면 담 4,000㎡ 2차선도로점 계획관리지역 공장, 창고 적합 매 5억2천만원
8.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전 24,795㎡ 2차선도로변 교차로 생산관리 지역 전원주택지 적합 매 18억원
9.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소재지 담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 물기공적합 매 2억 2천만원
10.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 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편선·전원주택지

-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유장 2161㎡ 교촌면는 3억3천
- 신안군 지도읍 관리지역 전 13662㎡ 농장·귀농·태양광 적합 1억
- 화순군 도곡면 드림강변 전담과 교통이 좋은 땅 3694㎡ 전원주택 3~4세대 개발적합 광주에서 20분거리 4억7천
- 담양군 대덕면 일석리 993㎡, 599㎡, 665㎡ 평당 55만원
- 신안군 충무면 우정리 열도리도 부근 2081㎡ 해안가인접 1억 2600만원
- 화순군 중앙면 가동사지 앞 신 13223㎡ 시설도 적합 교합가능 1억8천

투자·매도·교환

- 생촌동 2층 주거지 1651㎡ 다세대 빌라적합 16억5천
- 무안군 완안면 연사무소 인근 국도점 1312㎡ 은행 2500 매도 6천
- 월산동 다가구 주택 대지 206㎡ 6세대 매도 4억천
- 신안군 지도읍 임지도 가는 접점에서 1km, 월야전성 46116㎡ 독립된 생활공간에 최적임 매도 5억 국유지 26823㎡도 함께 있을 양사시에 적합
- 북구 망월동 주거지 1107㎡ 차량통행 좋은 2억7500
- 북구 망월동 주거지 430㎡ 초등학교 부근 1억5천
- 월산동 2층 주거지 606㎡ 다세대 원룸적합 5억5천
- 고흥동 남양면 신흥리 3838㎡ 과수원·특용작물 적합 4천만원
- 광산구 신촌동 자연녹지 전 1202㎡, 4419㎡, 3162㎡ 평당 65만원
- 나주시 산포면 신재리 29927㎡ 전원주택이나 요양시설 등에 적합, 은행 8억5천, 매도 평당 30만원/27억 1500만원
- 별장 가든 등 적합 장성군 북이면 땅 2667㎡ 건물 150㎡ 매도 3억2천
- 전원 주택 단지 개발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장성면 11908㎡ 전원 좋은 평당 16만원
- 담양군 봉산면 국도점 4489㎡ 요양시설등 적합 8억2천
-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대지와 전 840평 신2777㎡ 2억2천
- 시골주택 나주시 세지면 성산리 땅 807㎡ 주택은 깨끗할 6600만원
- 광산구 지평동 주거지역 4531㎡ 국도점 창고등 다용도 9억7천

상가건물

- 유동 원룸건물 대지 238㎡ 건물 152평 원룸5, 투룸7 안접 매도 7억
- 대의동 동부경찰서 부근 대지 235㎡ 건물295평 17억2천
- 중흥동 8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 918㎡ 건물 1853㎡ 매도 15억5천
- 남구 월산동 소방도로 코너 대지 149㎡ 건물은 2층 177㎡ 중국식당이나 삼겹살집등 작은 식당에 적합 은행7천만원 매도 3억천
-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부근 편선 땅 467㎡, 건물 221㎡ 매도 3억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무인텔 부지

- 무안군(읍) 성동리 621-1번지
- 대지 530평, 백악관 모텔 옆
- 무인텔 허가 등 조건
- 시세 12억
- 매매 11억 2천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종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